

눈앞에서 날아간 100만 달러



중국의 한 남성이 643만 위안(약 95만 7천만 달러) 짜리 복권에 당첨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썬'은 지난 달 19일 복권 판매

점에서 8위안(약 1달러)짜리 로또 4장을 랜덤 번호로 구매했다. 그리고 다음날 복권 추첨 방송을 보며 환호했다. 자신이 구매했던 복권 중 하나가 1등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당첨금은 643만 위안.

썬은 급히 복권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복권은 없었다. 썬은 복권을 구매한 후 자신의 행적을 떠올리다, 복권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것을 기억하고 어제 입었던 바지를 찾았다. 썬은 그 바지를 빨래 건조대에서 발견했다. 전날 밤 샤워하기 전 빨래바구니에 넣어뒀던 바지를 아내가 세탁한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던 썬은 절망했다. 1등에 당첨된 복권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기 때문이다. 썬은 절박한 심정으로 복권의 형태를 맞추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썬은 어쩔 수 없이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당첨복권을 가지고 상하이복지복권유통센터를 방문해 자신이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상하이복지복권유통센터는 썬이 구매했다고 주장한 복권 구매 시간대와 판매점이 1등 당첨자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훼손이 심하게 1등 당첨 복권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중국의 경우 당첨된 복권에 적혀진 여섯 자리와 구입 날짜와 바코드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을 눈앞에서 잃은 썬은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한 심경을 알렸지만 당첨금은 받을 수 없었다.

결혼식 망친 사진사가 '영웅'이 된 사연

터키 동부에서 결혼 예식에 고용된 사진사가 예식을 망치고도 영웅이 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터키 말라티아 주의 결혼 사진사 오누르 알바이라크(사진)이다.



알바이라크는 지난 5일 열린 한 결혼식에 사진사로 고용됐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처음 본 알바이라크는 신부가 너무나 어려 보인다는 생각에 신랑에게 신부의 나이를 묻자 "열다섯"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터키의 혼인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이며, 개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17세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 미만의 혼인은 어떤 경우든 불법이다.

사진사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해준다. 하지만 알바이라크는 달랐다. 그가 신랑에게 화를 내며 항의하자, 신랑은 계약대로 촬영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져 신랑의 코뼈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터키 전역에 알려졌다. 그러자 알바이라크는 오히려 영웅으로 또 올랐다. 알바이라크의 행동이 조혼 문제가 심각해지는 터키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알바이라크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신부는 어린애였고 공포로 떨고 있었다."며 "그 결혼식의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명인사가 된 알바이라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녀 신부는 아동학대다. 세상 누구도 나한테 소녀 신부 사진을 찍게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터키의 남부와 동부, 중부 등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지방에서는 이슬람교리상 허용된다는 이유로 10대 초반 소녀와 결혼이 묵인되곤 한다.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터키 동부나 동남부를 중심으로 난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매매혼 형태의 조혼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유 수유하며 패션쇼 무대 오른 모델

마이애미에서 열린 패션쇼 무대에 한 모델이 모유 수유를 하며 런웨이를 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모델 마라 마틴(사진)은 지난 15일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패션쇼에서 황금색 비키니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마틴은 아기를 안은 채 런웨이를 걸었다. 아이는 마틴의 5개월 된 딸 아리아였다. 아리아는 소음 방지용 이어폰을 착용해서인지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알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았다.



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워킹이다.", "엄마의 힘을 보여줬다." 등의 글을 올리며 마틴을 응원했다.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이 장면은 당초 연출된 게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당시 행사가 계속 지연된 탓에 마틴의 순서가 뒤로 연기돼 패마침 아리아의 수유 시간과 겹치게 된 것이다. 이에 주최 측 관계자가 마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무대에 서보라고 권유했고 마틴은 딸을 안고 런웨이에 등장했던 것이다.

마틴도 패션쇼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와 딸아이가 평소 내가 늘 하는 일로 신문 첫 면을 장식했더라."며 자신과 딸을 향한 네티즌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 swimsuit)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라며 마틴의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이 올라오자 많은 네티즌

이어 자신의 패션쇼 출연으로 "모유 수유를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여성들도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ric Kang
이릭강
Cell 213.663.8544
erickang@newstarrealty.com

한인타운, 부에나팍, 플러튼, 라하브라, 세리토스, 엘바인, LA. OC 전지역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에이전트!

Office 213.385.4989

한인타운 콘도	한인타운 콘도	부에나팍 콘도	부에나팍 콘도	부에나팍 콘도	<p>비즈니스 매물</p> <p>다운타운</p> <p>메디칼 유니폼 홀세일</p> <p>\$738,000</p> <p>인벤토리 포함 가격!</p> <p>월 매출: 평균 \$62,000 Net \$12,000 이상</p> <p>인벤토리 \$450,000(수입 월가)</p> <p>20년된 비즈니스</p> <p>영어필요</p> <p>가족 비즈니스로 최고의 아이템</p> <p>무한한 포텐셜</p> <p>꼭 사실만 연락주세요!</p>
\$46만 5천 HOT	\$57만	\$45만 8천 HOT	\$58만	\$62만	
방2+화2 약 980 sf 대 약 41,000 SF 좋은 동네	방2+화2 약 1,120 sf 대 약 9,000 SF 좋은 동네, 좋은 학교	방3+화2 건 약 1,270 sf 대 1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방2+화3 건 약 1600 sf 대 약 2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방3+화2 건 약 1,640 sf 대 약 58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부에나팍	플러튼 콘도	플러튼 콘도	플러튼 콘도	플러튼 하우스	
\$61만 5천	\$39만 HOT	\$40만 HOT	\$59만 5천	\$56만 HOT	
방3+화2 건 약 1,840 sf 대 약 6,6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방2+화2 약 1,1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방2+화2 약 1,2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방3+화3 약 1,54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방3+화2, 약 1,27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플러튼 하우스	플러튼 하우스	라하브라 콘도	라하브라 하우스	라하브라 하우스	
\$57만 5천 HOT	\$60만	\$42만 HOT	\$51만	\$56만 HOT	
방3+화2 약 1,800 sf 대 약 7,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방4+화3 건 약 1790 sf, 대 약 6,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방3+화2 건 약 1,1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방3+화2 건 약 1120 sf, 대 약 6,200 sf, 좋은 동네	방3+화2 건 약 1700 sf 대 약 5,60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콘도	세리토스 콘도	세리토스 하우스	세리토스 하우스	세리토스 하우스	
\$54만 HOT	\$65만	\$67만	\$72만 HOT	\$84만 HOT	
방3+화3 건 약 1,530 sf, 좋은동네	방3+화4 건 약 1,850 sf, 좋은동네	방3+화2 건 약 1,500 sf, 대 약 5,300 sf, 좋은 동네	방4+화3 건 약 2,100 sf, 대 약 4,100 sf, 좋은 동네	방4+화3 건 약 2,080 sf, 대 약 6,400 sf, 좋은 동네	

Realtor Associate at Beverly Hills Board of Realtor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

상 가 / 아 파 트 / 창 고 사 고 파 실 분 연 락 주 세 요 !

www.newstarrealty.com